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적응역량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안진경(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 · 박정윤(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역기능적 현상이 아닌 강점관점의 적응역량을 밝혀내기 위한 질적연구를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강점을 도출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적응역량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실시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후 5년 이상 부부생활을 하면서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중, 현재 부부만족도가 높고 한국생활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을 적응역량이 강화된 다문화가정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동일 집단 표집법에 의거하여 선발된 최종 10쌍 중 한국인 남성 배우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면접 지침서를 활용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이 범할 수 있는 비예측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모델의 3가지 차원의 방식을 취하여 구성하였다. 면접 지침서의 질문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Strauss & Cobin의 방식을 통한 질문분석 및 유사개념 간의 추상화 및 범주화과정을 통해 최종 89개의 개념과 24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24개 하위범주와 11개의 범주를 살펴보면 ‘1.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함’이라는 범주 안에 ‘결혼의 당위성 지각’, ‘국제결혼 가능성이 확대됨’, ‘배우자로 적절함’이 포함되었으며, ‘2. 가족지향가치관’의 범주 안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킴’,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아내입장 수용’이, ‘3. 문화관용력’은 ‘국제결혼에 대한 자신감’, ‘아내나라에 대한 포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4. 다문화가족 발달 상 위기’라는 범주에 속한 하위범주는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변의 배타적인 선입견’이었고, ‘5. 일반적 가족갈등’의 범주에는 ‘아들과 남편 역할 간의 갈등’, ‘개인성향의 차이’라는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6. 긍정적 자기합리화’에 있어 하위범주로는 ‘긍정적 자기인식’, ‘배우자에 대한 긍정성 부여’가 속했으며, ‘7. 소통하는 부부관계 형성’에는 ‘배우자 역할 수행’,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이, ‘8. 문화감수성 배양하기’에는 ‘배우자 문화가치인정을 통한 예의 갖추기’, ‘이중문화공유’가 해당되었다. ‘9. 비공식적 외부자원 활용’의 범주 안에는 ‘동병상련을 나눔’, ‘아내의 지역사회 활동지지’가, ‘10. 가정생활만족감’의 범주에는 ‘지족자부(知足者富)’, ‘가족안정감’이, 마지막 ‘11.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자긍심’의 범주 속에는 ‘비전의 내재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함’이 하위영역으로 나타났다.

축코딩 결과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요약하면, 인과적조건으로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함’, 맥락적 조건에는 ‘다문화가족 발달 상 위기’, ‘일반적 가족갈등’, 중재적 조건은 ‘긍정적 자기합리화’로 나타났으며, 중심현상은 ‘가족지향가치관’과 ‘문화관용력’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한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은 ‘소통하는 부부관계 형성’, ‘문화감수성 배양하기’와 ‘비공식적 외부자원 활용’이었으며 그 결과 ‘가정생활만족감’과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자긍심’이 적응역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겪게 되는 발달상 위기와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둘째, 국제결혼 후 겪게 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을 위해 예비국제결혼준비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을 위한 비공식서비스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이후 선택코딩을 통한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가설적 정형화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적응과정 속에 나타나는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